

“광주은행 지역환원 외면때 모든 수단 동원 투쟁”

지역경제, 경쟁입찰 반발 잇단 성명 姜시장 “지역자본에 가산점 부여해야”

정부가 지난 15일 광주은행 매각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공고하면서 광주시와 지역경제계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지역환원을 촉구해 나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광주은행의 공개경쟁입찰 매각 방식은 지역자본에 대한 우선협상권 부여와 유연한 금산분리 원칙 적용을 주장해 온 광주·전남 지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으로 공적자금 투입 극대화라는 논리에만 충실한 것”이

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은행이 명실상부 향토은행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지역자본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고 매각 협상과정에서 지역자본에 대한 인센티브나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며 “만약 지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은행 육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밝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광주 지역 정·관·계 인사로 이뤄진 ‘광

주은행 인수추진위원회’(회장 박홍석)도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전남 지역민은 IMF 당시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의 회생을 위해 250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4379억원의 투자손실을 입었으나, 광주은행의 조속한 지역환원을 위해 이를 감내해왔다”며 “지역민의 희생과 변함없는 애정 덕에 광주은행은 지난해 총자산 20조원의 우량은행으로 성장했고, 경영정상화에도 올려놓은 지역민의 희생은 매각 시 인센티브를 통해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정부는 지방은행 매각 시 지역상공인연합체 컨소시엄을 동일인으로 간주해 15%를 초과해 은행자본을 소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헌법법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을 때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정부는 무리한 법 확대 적용을 지양하고 지역 산업자본이 광주은행 자본을 15% 이상 초과해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추진위는 특히 “지역자본에 의한 우선협상권 배제 등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차단하려 한다던 지역연대 투쟁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번인 지역은행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반발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

날 성명을 통해 “매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방은행 매각 방식과 별 차이가 없어 실패가 예견되는 행태”라며 “지역 경제 극복을 위한 지방은행의 절실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지방은행이 무분별한 확장을 통해 우리 지역의 은행을 인수하게 됐을 때 지역 간 갈등이 불가피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이미 자본 매각과 배당을 통해 공적 자금의 85%를 회수한 만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환원에 방점을 뒀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간편하게 즐기는 ‘빨대 와인’ 16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1층 와인매장에 비캄스 시즌을 맞아 와인병에 빨대를 꽂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빨대 와인’이 선보였다. 이 제품은 스페인에서 생산된 ‘고네 네그로’(블랙)와 ‘카르타 네바다’(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으로 20~30대 젊은 여성층에게 인기가 높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금호타이어 ‘쿨 써머 이벤트’

한달간 구매고객 사은품

금호타이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 달간 전국 ‘타이어프로’(TIREPRO) 매장에서 고급 세단 및 SUV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행사를 실시한다.

16일부터 8월15일까지 열리는 ‘쿨 써머 이벤트’는 마제스티 솔루션, 엑스타 LE 스포츠, 시티벤처 프리미엄 타이어 4개 구입 고객에게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트레킹화, 동일 제품 2개 구입 고객에게 바캄스용품 4종(텐트·수영복·야외 의자·코일 세트) 중 1품목을 각각 증정한다. 또 예코

왕 S, 엑스타 4X를 4개 구매한 고객에게도 바캄스용품 4종 중 1품목을 제공한다.

구매 고객은 행사 제품 구매 후 교환권을 제공받아 금호타이어 홈페이지(www.kumhotire.co.kr)에 등록하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산단공 호남본부 공장설립 대행 서비스 호평 상반기 105건 지원 1285명 고용효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의 공장 설립 대행 서비스가 기업인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한국산단공 호남권본부는 16일 올 상반기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204건의 공장설립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105개사에 대해 공장설립 인·허가를 무료로 대행, 1285명의 고용효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진행건수는 광주 44건, 전북 31건, 전남 30건 등이며 광주와 담양, 장성, 장흥 지역에 주로 공장설립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21건, 공장등록 41건, 신설승인 25건, 기타 18건 순이며 업종별로는 음식료(29건), 기계

(26건), 석유화학(12건) 등이 많았다. 공장부지 규모별로는 1500~1만㎡ 미만이 54건(51.4%)으로 가장 많았고 1500㎡ 미만 40건(38.1%), 1만㎡ 이상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 지역별로는 관리지역 64%(68건), 도시지역 29%(31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개별입지의 공장설립보다 계획관리지역인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개별지 공장설립이 보다 활발했던 지난 2011년 말 광주에서 106건이던 인·허가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61건, 올 상반기 44건으로 줄어들면서 공장의 산단 집중화도 함께 이뤄졌다.

공장설립은 평균 50여 개의 법령이 관련되고 행정 인·허가에 평균 137일이 걸리는 등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분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1997년부터 전국 각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해 각종 행정절차를 무료로 대행, 200만~5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2개월 정도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공장설립의 모든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팩토리온(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을 구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설립 문의(070-8895-7935).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TP 창업센터 10대 유망기업 선정

광주테크노파크는 16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주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10대 유망 기업을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업은 한국광기술원의 엠피닉스㈜, ㈜레츠, 엠부테크㈜, 조선테크스코이에스㈜, ㈜바이탈로, ㈜엔씨 테크론, 광주여대 ㈜에브윈, ㈜다음코리아, 호남대 ㈜케이엔에이치, 동강대 ㈜이젠커뮤니케이션즈 등 10개사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선정 기업들이 아직 창업 초기인 만큼, 비즈니스 중

개 플랫폼 사업의 회원기업으로 지정, 광주테크노파크 직원으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배정하고, 기업진단·분석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청년창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18종 부동산서류, 한장으로 통합 발급 종합증명서 서비스 개시

앞으로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종합공부를 한 종의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17일부터 전국의 지자체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시범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 등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증명서 발급 및 열람 건수는 연간 2억 2500만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직접

등사무소 등을 통한 방문 발급이 1억 8000만건으로 80%에 이른다.

에컨대 토지에 관한 정보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6개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연필뉴스

백열전구 ‘역사속으로’

내년부터 생산·수입 중단...127년만에 퇴출

백열전구가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퇴출된다.

1879년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과 영국의 조셉 윌슨 스완이 발명해 1887년 경북공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127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 12월 발표한 백열전구 퇴출 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2014년 1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 및 수입이 전면 중단된다고 16일 밝혔다.

130여년간 인류의 삶을 개선해 왔지만 동시에 전기에너지의 95%를 열로 발산해 낭비하는 대량적 저효율 조명기기라는 오명을 써온 백열전구는 이로써 일반

가정과 사무실, 공장 등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미 70W 이상 150W 미만 백열전구는 작년 1월부터 강화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해 퇴출을 유도했으며 내년 1월부터 나머지 25W 이상 70W 미만 백열전구의 퇴출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해외 주요 국가도 백열전구를 퇴출하는 추세다. 미국은 내년부터 60W, 40W 이상 백열전구의 생산·판매를 금지한다. 유럽연합(EU)은 작년년부터 금지했고 중국도 내년 10월부터 60W 이상, 2016년 10월부터 15W 이상 백열전구의 판매를 막는다. /연필뉴스

헬로tv + LG LED TV 상품 안내 (VAT 포함가)

구분	일반 가전매장 일시불 판매가	헬로TV 가입시 일시불 구매가	일시불 구매시 할인율	일반 가전매장 할부 판매가(36개월)	헬로TV 가입시 할부 구매가(36개월)	할부 구매시 할인율
55형 55LN5400	2,600,000원	1,940,400원	25% ↓	3,088,800원	2,431,440원	13% ↓
42형 42LN5400	990,000원	477,400원	52% ↓	1,176,120원	788,040원	26% ↓
27형 27MA53D	360,000원	92,400원	74% ↓	427,680원	364,320원	6% ↓
23형 23MA53D	280,000원	0원	100% ↓	332,640원	253,440원	16% ↓

※주1) 인터넷 결합가입시 ※주2) 할부 구매시 수수료 12% 가산액 포함

☎가입문의 1588-3450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